

□ 사례명 : - 비용은 반으로! 힐링은 두배로 !!-
언택트 관광의 새 지평 연 “성박숲 희망길 와숲”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박숲 일원 ○ 추진기간 : 2020. 7. 17. ~ 2020. 8. 16(1개월)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사업내용 :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 관광을 통한 새로운 축제 개발
② 추진 경과	○ '20. 3. 26 : 코로나 19에 따른 성주대표축제 취소결정 ○ '20. 4. 13 : 성주생명문화축제 방향성 변경 결정 ○ '20. 7. 17~8. 16 : 성주 힐링프로젝트 “와숲” 진행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코로나19시대에 맞춰 대단위, 운집형 행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천연기념물인 성박숲 자원을 최대한 살려 <u>‘언택트 관광’의 최적지로 탈바꿈</u> ○ 타 부서와 협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u>사업비절감</u> ○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방역요원 배치로 <u>‘안전사고 및 코로나 19 확진자0 축제 달성’</u>
④ 우수사례 내용	○ 소규모 분산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 지역주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예산 절감 - 우리음식연구회 재능기부, 성주여성단체의 자원봉사 등 ○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관광을 통한 행사의 새로운 방향 제시
⑤ 성과	○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지역 발전기금 확보 - 당초예산 대비 700백만원 예산 절감 (사업비의 40% 절감) - 타실과 연계를 통한 행사진행으로 <u>행사 중복 시설비예산 절감</u> - 지역사회단체 방역활동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및 자원봉사 단체 음료판매 수익 기부로 <u>지역 발전 기금 확보</u> - <u>지역행사관련 산업(광고, 이벤트, 용역 등) 경기부흥</u> ○ 지역경기 활성화 : 행사장 주변 식음료업체 매출 상승 (<u>매출 15%상승</u>) ○ 야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진행법 도입 및 성공 - 행사기간 2주 경과 후에도 안전사고 및 확진자 제로 달성 - 관람객 10만명 달성(내방객 중 관외방문자 70%) ○ <u>대표 공영방송 방영 및 메이저신문에 언택트 관광지로 소개</u> - TBC영상뉴스, KBS1 쉬어가도괜찮아“마이크로여행”방영 - 중앙 및 지역 주요 신문, 인터넷 신문 등 개재 (<u>총 80회정도</u>)

새로운 축제 운영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지역경기활성화

1. 과제 선정 내용

『천연기념물 제 403호로 지정된 생태태마공원 “성박숲”』

- 대구, 칠곡 등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장점을 살려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소득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 2017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선정, 2020 언택트 관광 100선에 이름올린 천연기념물 제403호 왕버들 숲을 이용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여 왔음.
- 500년 고목과 맥문동꽃이 어우러지는 장관으로 많은 사진작가와 방문객들의 인지도가 높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음.

『포스트코로나시대, 저밀도 체류형 행사 진행법 제시』

-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대규모, 운집형 대면 행사로는 축제 불가
 - 고령화된 군단위 소규모 지자체는 100% 비대면 온라인 전환 어려움
- 분산형 소규모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과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With코로나시대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 군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실과소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동선이 겹치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밀집도를 낮춤.
 - “안전거리 파라솔”, “돛자리 안전거리 표식”등을 통해 버스킹과 돛자리영화관 운영으로 체류시간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근 카페, 편의점, 배달음식 등)
 - 왕버들 숲을 활용한 주·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내방객의 볼거리 제공
- 지역 주민참여와 자원봉사를 활용, 내실 있는 행사진행을 통해 40%의 예산절감
- 야외 행사에 맞는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사기간동안 방문객 10만명 방문 및 행사종료 2주 경과 후에도 안전사고 및 확진자 제로 달성

2. 문제원인 분석

-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2020년기준 지역축제 94%, 문화관광축제 91%가 취소·연기됨(‘20.7.7자 문체부 자체집계)
- 성주군도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5월, 성밖숲에서 4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생명문화축제 및 제7회 성주참외 페스티벌’취소로 지역관광 유치 요소가 사라지고 지역경제 타격, 축제관련 조직 붕괴 및 문화관광의 저변 위축
 - 기존 대규모, 유흥과 식문화 위주의 운집형 축제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준수가 불가능
 - 고령화된 군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특성상 100%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의 전환은 어려움
-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침체된 지역경기와 지친 군민들의 분위기 반전 및 문화행사 관련 지역업체의 고사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된 대응 전력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

3. 방안 마련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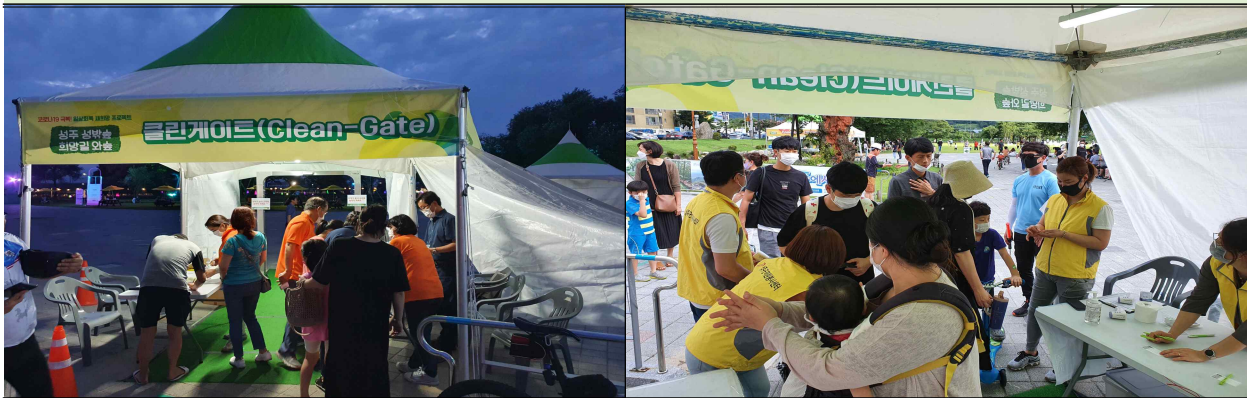
- 실외 행사에 적합한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행사장 확립**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3곳 방역요원 배치

- ▶ 상시(운영시간06:00 ~ 22:00) 3교대 운영으로 철저한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지역단체의 자원봉사를 통한 예산 절감
- ▶ 방역게이트 통과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해 행사장내 방문객 관리
- ▶ 발열 시, 격리소에 격리한 후 경과 관찰 및 2차 발열체크 → 37.5도 이상 지속 시, 보건소 이송 및 질병관리본부 보고
- **행사장 내부 진행요원(2명) 및 상시 방역 요원 배치(1명)**
 - ▶ 행사장 내부 경호요원 및 상시 방역 요원을 통한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지속적 계도

방역시스템 운영 사진 현황



- 행사의 목적을 『자연과의 만남을 통한 힐링과 휴식』으로 전환
 - 체험 및 식문화 위주의 행사에서 산책과 휴식으로 방향 전환
 - 토피어리, LED트리 및 그네 등 야간조명 설치로 볼거리 제공
 - “사회적거리두기”에 맞춰 파라솔 설치, 돛자리 간격 표식

행사장 운영 현황



- 대단위, 일회성 운집형 행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에 맞는 분산형 소규모 장기 체류형프로그램 개발로 행사 방향성 전환
- 단독으로 진행하던 소규모 행사의 일자 및 시간을 조정 하여 동선 분산을 통한 방문객의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체류시간의 증대로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기여
- 체험행사의 경우, 한 장소에 1가지 행사만 예약으로 진행
- 버스킹, 돛자리영화관 등 체류형 프로그램은 ‘안전거리 파라솔’ 설치 및 ‘돛자리 안전거리 표식’ 설치로 2m 사회적거리 유지 확보
- 행사기간 중 별빛 자동차극장, 썸머아트페스티벌 등 행사진행으로 분산을 통한 방문객 볼거리 확대 및 체류시간 증대

축 제 명		내 용	일시/ 장소	추진부서
와 숲	경 관 조 명	· 왕버들숲 사이 경관조명설치 ▶ 토피어리, LED트리, 달조명, LED 그네 등 야간조명설치 ▶ 맥문동 개화시기에 맞춰 행사	장소 : 성밖 숲 기간 : 7.17.~8.16	문화관광과
	돛 자 리 영 화 관	· 돛자리영화관 상영 (매일 19:30 ~)	장소 : 성밖 숲 기간 : 7.17.~8.16	문화관광과
	버 스 킹	· 와숲 행사기간 중 주말 토, 일 · 잔디밭 무대에서 아티스트 공연	장소 : 성밖 숲 기간 : 7.17.~8.16 시간 : 18:30 ~ 19:30	문화관광과
	문 화 가 있 는 날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 및 공연	장소 : 성밖 숲 기간 : 7. 29(수) 시간 : 17:00~19:30	문화관광과
별 자 동 차 극 장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들기, 공연 및 자동차영화 상영	장소 : 생명문화공원 기간 : 8.14.~8.16 시간 : 17:00~23:00	문화관광과
썸 머 아 트 바 캉 스		· 개인 및 가족 미니 수영장제공 · 예약제를 통한 놀이기구, 공연 관람	장소 : 문화회관 전정 기간 : 7.26.~8.16 시간 : 10:00~17:00	문화예술회관
참 외 요 리 체 험 교 실		· 와숲 행사기간 중 매주 토요일 실시 ▶ 매회 행사시, 부스설치 및 철거 · 지역사회단체(우리음식연구회)자원봉사 · 사전예약 후, 참외샌드위치만들기	장소 : 성밖 숲 기간 : 매주 토요일 시간 : 16:30~17:30	농업기술센터

4. 장애극복

- 폭우(8.5~8.8) 및 폭염(8.10~8.14)에 따른 행사장 운영 차질
 - 운영상황 본부를 통한 24시간 시설물 점검 및 운영요원 확대 배정
 - 사회단체의 체열봉사 및 무더위 음료 판매를 통한 운영예산 절감
 - ▶ 8개 자원봉사단체 32명 지원을 통한 10,000천원 예산절감
 - ▶ 무더위 음료 판매 대금 지역발전기금으로 전액기부
- 행사기간 중 서울 및 수도권 단체관광객 방문
 - 주 5회 인천지역 관광객 단체 및 수도권 개인 방문객 방문
 - 상시적 방역요원 배치 및 단체 방문객 전담요원 배치)로 행사 종료 2주 경과 시점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달성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타실과 협업 및 주민참여를 통한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 소규모 분산 체류형 행사진행으로 기존 사업비 대비 40% 예산절감
 - ▶ 예산 1,150백만원 450백만원 집행으로 700백만원 절감
 - 타실과와 연계한 체험행사 진행으로 중복 산정된 예산 절감 효과
 - ▶ 기존 와숲 행사에 설치된 부스 사용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주관 ‘참외요리체험교실’ 및 ‘문화가 있는 날’행사 시설 설치비 절감
 - 지역사회단체 방역활동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음료 판매 수익 기부로 지역 발전기금 확보
- 체류형 프로그램(버스킹, 돗자리영화관) 운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체류시간 증가로 식음료판매업체(커피, 식당, 배달업체 등)매출증대
 - ▶ 행사기간 전후 약 15% 정도 증가 효과
 - 지역행사관련업체(광고, 이벤트, 용역 등) 경기 부흥 효과

○ 야외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진행법 도입으로 **With코로나시대 축제 행사의 새 지평을 개척**

- 철저한 방역대응 아래 500년 왕버들 숲이 가진 고유의 힐링 기능을 살려 머뭇과 쉼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 다양한 볼거리와 적절한 체험, 공연을 안전과 접목시켜 **방문객 10만명 (안심스ticker 발부기준/관외방문객 70%) 중 행사종료 2주 경과 확진자 제로 달성**

○ 대표 공영방송 방영 및 메이저 신문에 **대구경북 대표 언택트 관광지로 소개**

- TBC 영상뉴스, KBS1 쉬어가도 괜찮아“마이크로여행” 등 공영방송 방영
- 서울일보, 대구신문, 경상일보 등 중앙지와 대구경북 주요 신문 개재
- ▶ 일간지60회, 인터넷 뉴스 20여회 개재

영남일보

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007면 사회
〈코로나에 지친 마음 달랠 경북 힐링행사 2선〉

서울일보

2020년 08월 20일 목요일 017면 지역

500년 왕버들 산책길 걸으며 마음치유

■성주 '희망길 와숲'

내달 16일까지 성박숲서 진행
LED트리·작은영화관 볼거리

경북 성주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일상회복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성주 성박숲에서 자연을 통한 정서적 치유의 장인 '희망길 와숲' 행사를 마련했다.

'생명(성박숲)빛오름(로)' '행복(광장)빛오름' '희망(이전)빛오름' '감동(전디밭)빛오름'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인 '희망길 와숲(힐링하러 와! 오감만족 성박숲)'은 500년 왕버들 산책길 곳곳에 토끼야리·아간 경관조형·감성 포토존 등을 설치해 맑은 공기와 더불어 산책길의 묘미를 더해준다.

또 이천변에 10m 크기의 수퍼문과 LED 트리를 설치하고 야외 돛자리 작



성주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해 성주 성박숲에 '희망길 와숲' 행사를 마련했다. 성주 성박숲에 조성된 토끼야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성주군 제공)

은 영화관과 거리공연 등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 게이트 설치·방문객의 열 체크 및 방역물품 작성·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요원배치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일상의 재원을 받는 지역민과 방문객이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길 바란다"며 "성주군도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문객의 안전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정기자 shcho@yeongnam.com



▲성주군은 성박숲 희망길 와숲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성주, 성박숲 희망길 와숲 행사 성료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일상회복과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정신적 치유와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응기있게 추진된 성주 성박숲 희망길 와숲(힐링하러 와! 오감만족 성박 숲) 행사가 지난 16일 한달 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산림청 주관 2017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및 문화관광부 주관 2020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생태데마 관광지 성박숲에서 추진된 이 행사는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아래 한여름 밤 아름다운 산비로온 숲속 빛의 향연 속에서 버스킹 공연과 와숲 돛자리 영화

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10만 명 가까이 다녀가며 언택트 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기반으로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언택트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성주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관광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이미경기자